

배드민턴 지도자-선수관계로 예측한 임파워먼트 및 동기[†]

이미숙¹ · 김홍기² · 남정훈³

¹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 ²대한배드민턴협회 국제협력 · ³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접수 2011년 12월 14일, 수정 2012년 1월 6일, 게재확정 2012년 1월 20일

요약

본 연구는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적 특성을 근거로 배드민턴 선수들의 임파워먼트와 스포츠 동기에 대하여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도자-선수관계의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결과 첫째, 배드민턴 지도자-선수관계는 배드민턴 선수의 임파워먼트의 형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드민턴 지도자-선수관계는 배드민턴 선수의 스포츠 동기 중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동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드민턴 선수의 임파워먼트는 스포츠 동기의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동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배드민턴 선수, 스포츠 동기, 임파워먼트, 지도자-선수관계.

1. 서론

스포츠 팀은 오직 경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집단 (지만준, 2007)이며 팀 구성원간의 상호보완성 및 관련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다. 따라서 스포츠 팀은 다른 사회집단과는 다르게 상부 및 하부 조직인 지도자와 선수 관계가 승리를 결정하는 주요결정변인이 되고 있다 (성한국, 2011). 이에 따라 팀에서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도자 역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 팀에서의 지도자 역할의 효율성은 팀 구성원간의 신뢰성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경기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개인적 차원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도자 역할의 효율성은 지도자의 리더십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도자의 리더십은 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팀 구성원 전체에 대한 지도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행동과정과 지표 (정용민과 윤양진, 1994; 지만준, 2007; Yuki, 1989)이다.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은 스포츠 현장을 중심으로 스포츠 팀의 효과적 운영과 목표달성에 대한 팀과 선수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구체적 수단으로 운동결과를 예측하는데 결정기준이 되고 있다 (House와 Mitchell, 1974).

이러한 지도자의 역할 모형이론인 리더십이론은 1940년대 이후 조직론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후 각 학문 영역별로 확대되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이론이다. 그리고 리더십이론의 연구들은 시대 및 상황적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에는 상황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이 연구는 2011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자체 학술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¹ 교신저자: (138-763)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오륜동),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E-mail: misook@knsu.ac.kr

² (138-749)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방이동) 501호, 대한배드민턴협회 국제협력, 부담당관.

³ (138-169)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오륜동),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스포츠 상황에서의 리더십이론으로는 경로목표이론 (House와 Mitchell, 1974)과 리더십 불일치 정도 모형 (Yuki, 1989)을 확대 및 통합시킨 Chelldurai (1978)의 다차원적 리더십 이론이 보편적 이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차원 리더십 이론에서는 스포츠는 다른 사회적 환경과는 달리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가정하며 그 상황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도자의 인식과 상황적 요구가 일치되어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결정된다고 제시한다. 즉 스포츠 상황에 따른 지도자의 판단이 선수 및 팀에 대한 지도자의 행동유형을 결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이론은 지도자의 리더유형이 타고난 성격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한 특성이론과는 달리 지도자의 리더유형이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는 인지평가 이론 (Deci와 Ryan, 1985)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스포츠 팀에서의 지도자와 선수들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Amorose와 Anderson-Butcher, 2007; Hollebeak와 Amorose, 2005)들에 의하면 스포츠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은 선수들의 지각하는 관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며 지도자와 선수관계는 지도자에 의한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보완적 관계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선수들이 인지평가로 정의된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과 선수들의 동기적 성향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에 의해 선수들의 동기 및 정서변인의 형성과정에 지도자의 행동유형에 대한 선수들이 인지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최마리와 김병준, 2008; Sarrazin 등, 2002). 즉 지도자의 일방적 행동 또는 리더십에 따라 선수들의 동기와 정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판단이 운동이나 경기에 대한 선수 자신들의 동기와 정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심리요인에 대한 기저요인으로 임파워먼트 (empowerment)가 제시되고 있다 (김수연과 강길현, 2010; 지만준, 2007).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심리적 파워를 증대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의 역량에 대한 인지적 판단인 자기 결정적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및 자결적 동기를 형성하는 자기관리이다 (신선정 등, 2010; 장재윤과 최한별, 2007; Conger와 Kanungo, 1988; Thomas와 Velthous, 1990; Spreizer, 1995; Wang 등, 2009). 그리고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업무환경에 대한 선택감 (sense of choice), 역량감 (sense of competence), 의미감 (sense of meaningfulness), 진보감 (sense of progress) 등의 인지적 판단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네 가지 인지적 요소를 통해 자신감과 만족 등의 긍정적 정서와 내적 동기를 촉진한다 (Thomas, 2002). 따라서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거나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이용하고 있다.

선수들의 임파워먼트를 분석한 김수연과 강길현 (2010) 및 지만준 (2007)의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정서적 반응과의 관계에 대하여 임파워먼트가 중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도자의 지도유형이나 리더십이 선수들의 임파워먼트를 형성하며 형성된 임파워먼트는 선수들의 선수생활과 운동에 대한 만족감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임파워먼트가 스포츠 팀에서의 지도자 역할의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팀에서의 지도자의 지도 효율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기여도와 선수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동기가 경기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박창렬과 고봉수, 2004; 이동현과 허정훈, 2006)을 근거로 본다면 적극적 경기력 향상방법으로 임파워먼트를 이용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와 리더의 지도 효율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기여도에 대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지도자의 지도유형과 선수들의 동기간의 관계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기여도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선수들의 임파워먼트와 동기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배드민턴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에서 훈련 중이나 경기 중 세트마다 지도자와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다 (최마리와 김병준, 2008).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들은 기술적 부분외에 심리적 부분까지 지도자의 세심한 지도를 받고 있으며 지도자의 행동에 따라 선수들의 운동수행과 관련된 심리

적 변인들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권과 강관희, 2004). 최마리와 김병준 (2008)의 연구에 의하면 배드민턴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행동유형에 대하여 선수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배드민턴 선수들의 동기수준과 자기효능감이 비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지도자의 지도행동에 대한 선수들의 인지평가와 선수들의 임파워먼트 및 동기수준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제와 배드민턴 선수들의 운동수행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대한 지도자와 선수관계의 기여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배드민턴 선수와 지도자의 관계적 특성과 선행연구를 통한 임파워먼트 및 동기간의 상호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도자의 관계와 선수들의 행동유형과 강도를 결정짓는 임파워먼트 및 동기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도자의 지도유형에 대한 평가와 임파워먼트 및 동기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드민턴 선수들이 지각하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관계는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배드민턴 선수들이 지각하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관계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배드민턴 선수들의 임파워먼트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결과는 배드민턴 지도자의 지도역할의 효율성과 배드민턴 선수들의 경기력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및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2011년 대한배드민턴 협회의 선수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를 모집단을 설정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도움을 받아 확보된 선수명단을 근거로 전국의 중·고등부, 대학 및 일반팀에 사전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협조를 구하였다. 연구협조의사를 밝힌 서울, 경기도, 대전, 충주, 광주, 전주, 익산, 대구, 및 부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65개 팀을 연구자 외 6명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전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선수들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작성방법을 설명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검사지는 현장에서 바로 수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87부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1과 같다.

표 2.1 연구대상 특성

구분	n	%	
성별	남	160	55.7
	여	127	44.3
소속	중학교	47	16.4
	고등학교	118	41.1
	대학교	98	34.1
	일반팀	24	8.4
경력	3-4년이하	5	1.7
	5-7년이하	57	19.9
	8-10년이하	159	55.4
	11년이상	66	23.0

2.2. 조사도구

2.2.1. 지도자-선수관계

지도자-운동선수관계는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도자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Jowett과

Ntoumaunis (2004)가 개발한 코치-운동선수 관계를 척도 (CART-Q)를 김기형과 박중길 (2008)이 한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통하여 재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3요인 (헌신, 친근감, 상보성) 10요인,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 지도자-선수관계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문항	지도자-선수관계			α
	상보성	헌신	친근감	
코선9	.898	.119	.251	.848
코선10	.865	.155	.272	
코선8	.849	.267	.165	
코선2	.202	.866	.169	.732
코선1	.163	.809	.303	
코선5	.225	.227	.877	
코선4	.342	.303	.769	.800
전체	4.022	1.115	.677	
분산 (%)	57.450	15.935	9.672	
누적 (%)	57.450	73.385	83.057	

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의 정규 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문항응답비율, 첨도 및 왜도 등 정규분포성을 위배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응준 등, 2011). 기술통계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최대우도, 사각회전)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공통성 값이 .40이하로 나타난 문항 (3번, 6번), 요인 적재값이 인접한 두 요인에서 .40이상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위배한 문항 (7번)을 제외한 3요인 7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2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적합지수가 $\chi^2=26.18$, $df=11$, $p=.000$, Q값=2.38, RMR=.03, GFI=.97, CFI=.98, TLI=.97, RMSEA=.06로 나타나 모형적합지수는 수용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업, 2008; 송지준, 2008).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코치-운동선수관계는 최종 3요인 7문항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상보성 $\alpha=.848$, 헌신 $\alpha=.732$, 친근감 $\alpha=.800$ 로 나타났다.

2.2.2. 임파워먼트

선수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는 Speitzer (1995)가 개발한 임파워먼트 검사지를 한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선배과 권형섭 (2007)과 최태원 등 (2008)이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재구성한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4요인 (과업의미성, 역할수행능력, 자기결정력, 영향력) 16문항,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문항 간 응답비율이 50%가 넘어 정규분포성을 위배한 문항 (5번, 11번, 16번)이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기술통계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최대우도,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통성이 .40이하로 나타난 문항 (9번)을 제외한 4요인 12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2.3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모형적합도지수가 $\chi^2=123.40$, $df=48$, $p=.000$, Q값=2.57, RMR=.03, GFI=.93, CFI=.95, TLI=.93, RMSEA=.07로 나타나 모형적합지수는 수용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업, 2008; 송지준, 2008). 따라서 문항삭제 없

표 2.3 임파워먼트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문항	임파워먼트				α
	자기결정	영향력	역할수행	과업의미	
임파3	.850	.251	.193	.031	.879
임파4	.822	.180	.116	.190	
임파2	.804	.234	.152	-.131	
임파1	.794	.030	.231	.178	
임파15	.181	.820	.295	-.001	.849
임파14	.223	.788	.322	.082	
임파13	.201	.782	.153	.292	
임파7	.184	.158	.829	.265	.717
임파6	.192	.347	.641	.096	
임파8	.263	.340	.632	.065	
임파12	.065	-.001	.101	.870	.623
임파10	.082	.271	.200	.749	
전체	5.261	1.606	1.216	.723	
분산 (%)	43.842	13.386	10.137	6.028	
누적 (%)	43.842	57.227	67.365	73.395	

이 최종 4요인 12문항으로 재구성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후 요인별 신뢰도는 자기결정력 $\alpha=.879$, 영향력 $\alpha=.849$, 역할수행능력 $\alpha=.717$, 과업의미성 $\alpha=.623$ 으로 나타났다.

2.2.3. 스포츠동기

선수들의 스포츠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는 Pelletier 등 (1995)이 개발한 검사지를 한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문보라 등 (2009)이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구성한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3요인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 21문항,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규분포성을 위배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응준 등, 2011). 기술통계분석 후 탐색적 요인분석 (최대우도, 사각회전)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공통성이 .40이하로 나타난 문항 (6번, 7번, 15번)과 두 요인에 대하여 요인의 적재값이 .40이상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위배한 문항 (14번, 17번, 18번, 21번)을 제외한 3요인 14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는 결과는 표 2.4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적합지수가 $\chi^2=263.19$, $df=74$, $p=.000$, Q값=3.55, RMR=.05, GFI=.89, CFI=.89, TLI=.86, RMSEA=.09로 나타나 수용타당하지 않아 모형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수정은 수정지수 (MI) 값을 기준으로 모형수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따라 수정지수 (MI)가 큰 문항 (10번, 19번)이 삭제되었다. 모형수정 후 모형적합지수를 확인한 결과 $\chi^2=126.33$, $df=51$, $p=.000$, Q값=2.47, RMR=.04, GFI=.93, CFI=.94, TLI=.92, RMSEA=.07로 나타나 수용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최종 3요인 12문항으로 결정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내적동기 $\alpha=.870$, 외적동기 $\alpha=.681$, 무동기 $\alpha=.745$ 로 나타났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287부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성실하게 작성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통해 전산처리를 하였다. 자료의 정규분포성과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한 기술통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과 AMOS 18.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배드민턴 코치-선수관계와

표 2.4 스포츠 동기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분항	스포츠 동기			α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	
동기13	.802	.121	.089	.893
동기2	.750	.083	-.065	
동기1	.745	.195	-.108	
동기19	.688	.236	-.058	
동기10	.683	.290	.162	
동기4	.682	.027	-.229	
동기20	.671	.283	-.134	
동기8	.663	.183	-.173	
동기11	.636	.394	-.043	
동기12	.342	.774	-.028	
동기9	.330	.766	.089	
동기16	.046	.654	-.048	
동기3	.014	-.101	.908	.745
동기5	-.225	.093	.835	
전체	5.695	1.685	1.150	
분산 (%)	40.680	12.033	8.214	
누적 (%)	40.680	52.713	60.927	

임파워먼트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한 상관분석과 변수간의 중복 조정문제를 해결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위계적 회귀분석 (강성과 최경호, 2009; 조장식, 2010)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3.1 상관분석

표 3.1 지도자-선수관계와 임파워먼트 및 스포츠 동기 상관관계분석

	상보성	헌신	친근감	자기결정	영향력	역할수행	과업의미	내적동기	외적동기
상보성	1								
헌신	.444**	1							
친근감	.573**	.572**	1						
자기결정	.315**	.267**	.432**	1					
영향력	.382**	.300**	.411**	.902**	1				
역할수행	.400**	.357**	.319**	.515**	.559**	1			
과업의미	.383**	.146**	.182**	.223**	.362**	.393**	1		
내적동기	.331**	.228**	.253**	.216**	.312**	.326**	.380**	1	
외적동기	.233**	.351**	.347**	.286**	.337**	.345**	.219**	.520**	1
무동기	-.100	.003	-.084	.095	.019	-.131*	-.170**	-.210**	-.025

*p<.05, **p<.01

배드민턴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도자-선수관계와 임파워먼트 및 스포츠 동기의 상관분석결과 지도자-선수관계의 상보성과 헌신 및 친근감은 스포츠 동기의 무동기를 제외한 임파워먼트의 자기결정력, 영향력, 역할수행 및 과업의미지도자, 그리고 스포츠 동기의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와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는 자기결정력과 영향력, 역할수행 및 과업의미성은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동기에는 역할수행과 과업의미성 및 내적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2. 지도자-선수관계와 임파워먼트의 관계

지도자-선수관계와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잔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자료의 이상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잔차의 정규분포성과 등분산성 및 선형성도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지도자-선수관계와 임파워먼트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독립\종속	자기결정			영향력			역할수행			과업의미			공차
	β	t	F (R ²)	β	t	F (R ²)	β	t	F (R ²)	β	t	F (R ²)	
1 상보성	.31	5.61	31.48*** (.096)	.38	6.97	48.68*** (.143)	.26	7.35***	54.14*** (.157)	.25	7.00***	49.11*** (.140)	1.00
2 상보성	.18	3.94**	19.27*** (.113)	.31	5.12**	28.51*** (.161)	.19	5.06***	35.49*** (.192)	.26	6.49**	24.61*** (.142)	.80
현신	.12	2.54**		.16	2.69**		.15	3.73***		-.02	-.49		.80
상보성	.07	1.49		.20	3.15**		.18	4.35***		.20	6.14**		.65
3 현신	.01	.18	22.62** (.185)	.06	.93	24.07*** (.195)	.14	3.20**	8.80*** (.194)	-.07	-.14	16.54*** (.144)	.65
친근감	.27	5.09***		.25	3.58***		.02	.46		-.03	-.69		.54
	D-W=1.79			D-W=1.89			D-W=1.89			D-W=2.09			

*p<.05, **p<.01, ***p<.001

표 3.2에서 나타난 것처럼 F값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D-W (Dubin Watson)값도 기준값인 2에 근접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선수관계와 임파워먼트의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자기결정력, 영향력, 역할수행력, 과업의미성 모두 모델 1에서 모델 3으로 갈수록 지도자-선수관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력에는 지도자-선수관계가 18.5%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친근감 ($\beta=.2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에는 지도자-선수관계가 19.5%의 영향을 미치며 친근감 ($\beta=.25$, $p<.001$)과 상보성 ($\beta=.20$, $p<.01$)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수행력에는 지도자-선수관계가 19.4%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상보성 ($\beta=.18$, $p<.001$)과 현신 ($\beta=.14$, $p<.01$)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의미성에는 지도자-선수관계가 14.4%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보성 ($\beta=.20$,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지도자-선수관계와 스포츠 동기의 관계

지도자-선수관계와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잔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자료의 이상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잔차의 정규분포성과 등분산성 및 선형성도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에서 나타난 것처럼 F값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D-W (Dubin Watson)값도 기준값인 2에 근접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선수관계와 내적동기의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 모두 모델 1에서 모델 3으로 갈수록 스포츠 동기에 대한 지도자-선수관계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동기에는 상보성 ($\beta=.26$, $p<.001$)이 내적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동기에는 현신 ($\beta=.22$, $p<.001$)과 친근감 ($\beta=.21$, $p<.01$)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동기에는 지도자-선수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지도자-선수관계와 스포츠 동기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독립\종속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			공차
	β	t	F (R ²)	β	t	F (R ²)	β	t	F (R ²)	
1 상보성	.33	5.93***	35.18*** (.107)	.23	4.04***	16.34*** (.051)	-.10	-1.68	2.85*** (.022)	1.00
2 상보성	.28	4.61***		.09	1.55		-.12	-1.90		.80
현신	.10	1.62	19.00*** (.110)	.30	5.00***	21.36*** (.125)	.05	.88	1.81*** (.061)	.80
3 상보성	.26	3.82***		.01	.17		-.10	-1.46		.65
현신	.07	1.13	12.84*** (.112)	.22	3.32***	17.33*** (.146)	.07	1.04	1.31* (.071)	.65
친근감	.05	.75		.21	2.86**		-.04	-.58		.54
D-W=1.95			D-W=2.01			D-W=1.63				

*p<.05, **p<.01, ***p<.001

3.4. 임파워먼트와 스포츠 동기의 관계

임파워먼트와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잔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자료의 이상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잔차의 정규분포성과 등분산성 및 선형성도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임파워먼트와 스포츠 동기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독립\종속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			공차
	β	t	F (R ²)	β	t	F (R ²)	β	t	F (R ²)	
1 자기결정	.21	3.74	13.98*** (.043)	.28	5.03***	25.38*** (.070)	-.095	-1.61	2.60*** (.01)	1.00
2 자기결정	.35	2.71**		.09	.76		-.42	-1.72		.18
영향력	.62	4.88***	19.38*** (.114)	.42	3.29**	18.52*** (.109)	-.36	-.981	4.92*** (.02)	.18
3 자기결정	.36	2.86**		.11	.87		-.43	-1.18		.18
영향력	.51	3.91***	17.31*** (.146)	.30	2.35*	16.88*** (.143)	-.25	-1.84	6.49*** (.05)	.17
역할수행	.22	3.42***		.23	3.47**		-.21	-1.14		.68
4 자기결정	.29	2.12***		.22	2.41***		-.36	.01		.11
영향력	.33	2.48*		.19	1.93		-.16	-1.15		.15
역할수행	.15	2.32*	17.76*** (.210)	.27	3.12**	12.84*** (.171)	-.17	-2.11	5.75*** (.06)	.63
과업의미	.24	4.03***		.05	.87		-.12	-1.83		.75
D-W=2.01			D-W=1.92			D-W=1.66				

*p<.05, **p<.01, ***p<.001

표 3.4에서 나타난 것처럼 F값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D-W (Dubin Watson)값도 기준값인 2에 근접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와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 모두 모델 1에서 모델 3으로 갈수록 스포츠 동기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는 내적동기에 19.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 ($\beta=.33, p<.05$), 자기결정력 ($\beta=.29, p<.01$), 과업의미성 ($\beta=.24, p<.001$), 역할수행력 ($\beta=.15, p<.05$) 순으로 내적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동기에는 임파워먼트가 17.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수행력 ($\beta=.27, p<.01$)과 자기결정력 ($\beta=.22,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동기에는 임파워먼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관계가 선수들의 임파워먼트 및 동기에 대

한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임파워먼트의 자기결정력에는 지도자와 선수관계의 친근감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에는 상보성과 친근감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할 수행에는 상보성과 헌신이, 과업의미성에는 상보성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신들의 지도자가 선수들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지도자와 선수들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한 배드민턴 선수들일수록 높은 임파워먼트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김민정과 조광민 (2010), 성낙광 (2011), 지만준 (2007)의 연구결과 일치하며 Jowett과 Ntoumanis (2004)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Jowett과 Ntoumanis (2004)는 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지도자에 대하여 선수들은 상보적 관계를 의미하는 상보성과 친근감을 느끼며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임파워먼트가 자기 결정적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 (Spreizer, 1995; Wang 등, 2009)을 고려한다면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선수들이 인지한 상보성과 친근감이 선수들이 임파워먼트를 형성한다고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다면 배드민턴 선수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수들과의 관계에서 배드민턴 지도자들은 선수들이 지도자에 대한 친근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관계 및 동기의 관계에서는 지도자와 선수관계의 상보성이 내적동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며 외적동기에는 헌신과 친근감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마리와 김병준 (2008)과 성한국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성한국 (2011)의 연구에서는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관계는 배드민턴 선수들의 동기 이외에 운동정서의 형성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관계는 배드민턴 선수의 운동수행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폭넓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드민턴 지도자는 배드민턴 선수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선행적 전략으로 반드시 선수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배드민턴 선수의 임파워먼트와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는 내적동기에 자기결정력과 영향력, 역할수행력 및 과업의미성이 정적영향을 미치며 외적동기에 대해서는 자기결정력과 역할수행력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Deci와 Ryan (1985)의 자기결정이론과 Kohn (1993), Conger와 Kanung (1988) 및 Thomas (2002)의 인지평가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Conger와 Kanung (1988)은 임파워먼트는 활동력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내적동기부여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Kohn (1993)은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내면적 심리파워이므로 자신과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심리파워가 높을수록 주변 환경에 대한 내적동기 역시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본다면 Conger와 Kanung (1988) 및 Kohn (1993)의 주장은 타당하며 나아가 배드민턴 선수들의 동기강화전략 또는 동기부여전략으로 임파워먼트를 이용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외적동기에도 임파워먼트의 자기결정력과 역할수행력이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에서 자기결정력은 자율성 욕구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역할수행력은 유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Deci와 Ryan, 1985). 즉 임파워먼트의 자기결정력과 역할수행력은 기본적 심리욕구의 자율성과 유능성 욕구의 구체적 실행능력을 의미한다. Deci와 Ryan (1985)는 자결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자율성욕구와 유능성욕구의 성취도와 외적동기의 형성은 비례적 관계임을 제시하였으며 스포츠 분야에서 자결성 이론에 관한 연구 (남정훈과 이인화, 2011; 정용각, 2008; Deci와 Ryan, 2000)들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결정력과 역할수행력이 내적동기 외에 외적동기의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타당한 결과이며 나아가 배드민턴 선수의 동기형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중요도를 제시하

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관계와 임파워먼트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관계가 선수들의 임파워먼트 및 스포츠동기의 기저요인임이 밝혀졌으며 임파워먼트의 강화는 스포츠 동기의 강화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다면 배드민턴 지도자는 선수들의 임파워먼트와 스포츠 동기 강화전략의 선행적 조건으로 지도자와 선수관계에 대한 선수들의 긍정적 인지판단을 형성 또는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관계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도자와 선수관계가 팀에서의 개인의 내·외적 수행력을 의미하는 임파워먼트와 동기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진행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관계와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결정력에는 친근감이, 영향력에는 상보성과 친근감이, 역할수행력에는 상보성과 헌신이, 과업의미성에는 상보성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보적 관계 중심의 지도자 선수관계가 임파워먼트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관계와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적동기에는 상보성이 외적동기에는 헌신과 친근감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보적 관계의 배드민턴 지도자 선수관계가 선수들의 동기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셋째, 임파워먼트와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적동기에는 자기결정력, 영향력, 역할수행력 및 과업의미성이 정적영향을 미치며 외적동기에는 자기결정력과 역할수행력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파워먼트가 선수들이 동기형성에 대한 기저요인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참고문헌

- 강성, 최경호 (2009).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대학기숙사식당 서비스품질 측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 983-990.
- 김기형, 박종길 (2008). 한국판 코치-운동선수 관계 척도의 구조적 타당화. <한국체육학회지>, **47**, 219-233.
- 김대권, 강관희 (2004). 배드민턴 지도자의 리더십 행동과 성원만족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 611-623.
- 김대업 (2008). <AMOS A to Z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학현사, 서울.
- 김민정, 조광민 (2010).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한 태권도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운동만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9**, 223-234.
- 김수연, 강길현 (2010).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태권도 코치의 서번트 리더십에 따른 임파워먼트와 선수만족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12**, 157-169.
- 김응준, 김종규, 이남주, 이미숙 (2011). 스포츠영재들의 자아존중감 문항적합도.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 487-494.
- 문보라, 이병준, 김동환 (2009). 스포츠 정서척도의 타당화 검증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 31-46.
- 박창렬, 고봉수 (2004). 태권도 선수의 성취동기, 불안수준, 자기효능감과 경기력 간의 관계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5**, 1393-1402.
- 성낙광 (2011). 체조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체조선수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3**, 313-326.
- 성한국 (2011). <배드민턴 지도자-선수관계, 자결성 및 정서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 송지준 (2008). <SPSS/AMOS 통계분석방법관계>, 21세기사, 서울.
- 신선정, 정원균, 김기영 (2010). 치과위생사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하위 요인들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4**, 525-533.

- 이동현, 허정훈 (2006). 배드민턴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 따른 동기와 수행전략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7**, 357-368.
- 장재윤, 최한별 (2007).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율적 동기화의 매개효과 및 고/저 수행 집단간의 차이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0**, 113-133.
- 정용각 (2008). 여가운동상황에서 성취목표성향과 자결성 이론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 47-60.
- 정용민, 윤양진 (1994). 코치의 지도자 행동이 성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10**, 155-171.
- 조선배, 권형섭 (2007). 변혁적 리더십이 호텔종사원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지>, **16**, 63-76.
- 조장식 (2010). 학업성취도에 대한 대입전형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1**, 729-736.
- 지만준 (2007). 축구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과 임파워먼트, 집단응지력, 선수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6**, 357-368.
- 최마리, 김병준 (2008). 배드민턴 선수와 지도자 행동일치로 예측한 내적동기 및 자기효능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 169-184.
- 최태원, 김장환, 최명수, 박진기, 엄대영 (2008). 프로축구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임파워먼트와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 481-490.
- Amorose, A. J. and Anderson-Butcher, D. (2007). Autonomy-supportive coaching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in high school and college athlete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 654-670.
- Chelladurai, P. (1978). Preferred leadership in sport. *Canadian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 **3**, 85-97.
- Conger, J. A. and Kanungo, R. N. (1988). The empowerment proces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475-493.
- Deci, E. L. and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Plenum Press, New York.
- Hollembek, J. and Amorose, A. J. (2005). Perceived coaching behaviors and college athletes' intrinsic motivation: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7**, 20-36.
- House, R. J. and Mitchell, T. R. (1974). Path-goal theory of leadership. *Journal of Contemporary Business*, **3**, 81-97.
- Jowett, S. and Ntoumanis, N. (2004).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 Science*, **14**, 245-257.
- Pelle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Tuson, K. M. and Briere, N. M. (1995). Toward a new measure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in sport: The sport motivation scale(SM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7**, 35-53.
- Sarrazin, P., Vallerand, R.J., Guillet, E., Pelletier, L. and Cury, F. (2002) Motivation and dropout in female hand ballers: A 21month prospective stud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 395-418.
- Spreitzer, G. M.(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 Dimension,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 31-39.
- Thomas, K. W. and Velthouse, B. A.(1990).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 666-681.
- Wang, C. K., Koh, K. T. and Chatzisarantis, N. L. (2009). An intra-individual analysis of players' perceived coaching behaviours, psychological needs, and achievement goal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and Coaching*, **4**, 177-192.
- Yuki, G. A. (1989). *Leadership in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NJ.

Empowerment and motivation predicted by relationship between badminton coaches-athletes[†]

Mi Sook Lee¹ · Hong Gi Kim² · Jung Hoon Nam³

¹Division of Community Spor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²International Relation Department, Badminton Korea Association

³Sport Science Institut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Received 14 December 2011, revised 6 January 2012, accepted 20 January 201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contribu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es-athletes which the athletes have perceived concerning the empowerment and sport motivation on the basis of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badminton coaches-athlet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badminton coaches-athletes had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empowerment to badminton athlete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badminton coaches-athletes had positive effect on the internal motivation and external motivation among the sport motivation of badminton athletes, while it had no effect on non-motivation. Third, the empowerment of badminton athletes had positive effect on the internal motivation and external motivation, but it had no effect on non-motivation.

Keywords: Badminton athletes, empowerment, relationship between coaches-athletes, sport motiva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cademic research subject from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¹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ty Spor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138-763, Korea. E-mail: misook@knsu.ac.kr

² Assistant director, International Relation Department, Badminton Korea Association, 424 Olympic Road #501, Songpa Gu, Seoul 138-749, Korea.

³ Research professor, Sport Science Institut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138-763. Korea.